

서울경제

2016년 05월 23일 (월)
33A면 전국

비무장지대 SNS홍보단 'DMZ 프렌즈' 발족

경기도는 비무장지대(DMZ)의 진정한 가치를 홍보할 DMZ SNS홍보단 'DMZ 프렌즈 3기'가 지난 20일 발대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고 22일 밝혔다. 'DMZ 프렌즈'는 도내 각종 DMZ 일원 문화 행사에 직접 참여해 다양한 미션을 수행하고 SNS를 통해 DMZ 일원의 생태·안보·역사·문화적 가치를 널리 알리는 역할을 하는 SNS 홍보단이다. 경기도와 경기관광공사는 지난 4월부터 DMZ에 관심이 있는 대학생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35명을 최종 선발했다.

/윤종열기자
9.3 X 4.8 cm

중부일보

2016년 05월 23일 (월)
018면 종합

1천300명 시민들 임진강·주상절리 비경 만끽

두번째 평화누리길 걷기행사 46m 규모 조재현 다리 개통

임진강과 주상절리의 비경을 마음껏 즐길 수 있는 올해 두 번째 평화누리길 걷기행사가 성황리에 끝났다.

22일 경기도에 따르면 평화누리길 걷기행사가 지난 21일 연천 평화누리길 제11코스 임진적벽길에서 가족단위, 트레킹 동호회 등 1천300명이 참가한 가운데 열렸다.

'주상절리, 비경 속 봄을 걷다.'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행사에서 참가자들은 임진물새롬랜드를 출발, 수현재교를 지나 주상절리, 동이리 마을회관, 설운교를 거쳐 다시 임진물새롬랜드로 돌아오는 10.5km의 순환형 코스를 걸었다. 또 올해 평화누리길 종주투어 홍보대사

로 위촉된 영화배우 이광기씨와 박원휘 학생도 참여해 참가자들과 포토타임을 갖고 평화누리길을 동행했다.

평화누리길 페이스페인팅, DMZ 야외사진전시회, 평화누리길 포토카드 인증샷 찍기, 주상절리에서 보내는 편지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도 마련돼 큰 호응을 얻었다. 특히, 이날 행사에서는 황궁천과 임진강이 합류하는 지점을 건너는 높이 14m, 길이 46m, 폭 3m 규모의 교량 '수현재교(일명 조재현 다리)'의 개통식도 열렸다.

개통식에는 김규선 연천군수, 배수문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 연천군의회 의장, 지난해 평화누리길 홍보대사이자, 현재 DMZ국제다큐영화제 집행위원장을 맡고 있는 조재현 씨도 참석해 수현재교의 개통을 축하했다.

참가자들은 개통기념 장식물들로 꾸며진 수현재교 위에서 임진강과 황궁천을 배경삼아 기념사진을 찍으며 추억의 한 페이지를 장식했다.

이번 행사에 참가한 김화주(61세)씨는 "임진강의 도도한 물길은 물론, 쉽게 찾아볼 수 없는 주상절리 등을 마주하니 마치 한 폭의 산수화 속으로 직접 들어간 느낌"이라면서 "앞으로 이런 행사뿐만이 아니라 가족들과 함께 종종 찾아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윤병집 경기도 균형발전기획실장은 "연천 임진적벽길은 임진강, 주상절리 등 주변 곳곳에 보물들이 산재해 있는 곳"이라면서 "이 같은 보물들이 더욱 빛날 수 있도록 평화누리길을 명품트레킹 코스로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조윤성기자

17.0 X 11.0 cm

걸음마다 느껴지는 화려한 봄의 유혹

도, 연천서 평화누리길 걷기행사 가족·동호회 등 1300여명 참가

경기도는 지난 21일 연천 평화누리길에서 올해 두번째 '평화누리길 걷기행사'를 열었다.

'주상절리, 비경 속 봄을 걷다'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행사에는 가족단위, 트레킹 동호회 등 약 1천300여명이 참가했다.

행사는 참가자들이 임진물새롬랜드, 주상절리, 설운교 등 10.5km 순환형 코스를 걷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와 함께 홍보대사로 위촉된 배우 이광기씨와의 포토타임을 비롯해 페이스페

인팅, 야외사진전시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도 마련됐다.

이밖에 DMZ 환경 보존을 위한 교육 및 봉사프로그램과 연천특산품을 볼 수 있는 미니장터도 운영됐다.

또 이날 행사에는 황공천과 임진강이 합류하는 지점을 건널 수 있는 '수현재교' 개통식도 열려 참가자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했다.

도 관계자는 "연천 임진적벽길은 임진강, 주상절리 등 주변 곳곳에 볼 거리가 가득하다"며 "평화누리길을 명품트레킹 코스로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용현기자 cyh3187@

11.8 X 8.9 cm

DMZ를 역사, 자연, 평화 관광의 메카로

한국은 이념대립으로 인해 분단된 국가이다. 종교나 민족 간의 차이로 인해 내전을 겪거나 분단된 것이 아니라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라는 이념으로 인해 민족상잔의 전쟁을 겪은 것이다. 이제 한 달 남짓 후면 6·25 전쟁이 발발한지 66년이 된다. 6·25로 인한 인명피해는 실로 엄청났다. 남한 민간인 37만3천599명이 목숨을 잃었고, 22만9천625명이 부상을 당했다. 한국군 사망자는 5만8천809명, 부상자 17만8천632명, 실종(포로) 8만2천318명이었으며 UN군 사망자는 3만6천991명, 부상자 11만5천648명, 실종(포로) 6천994명이었다. 자업자득이라고는 하지만 전쟁을 일으킨 북한은 더 큰 피해를 입었다.

이처럼 6·25로 인한 사망·부상자에다 전쟁고아나 미망인, 이재민, 이산가족을 포함하면 당시 남북한 인구 3천만명의 절반이 훌쩍 넘는 1천800여만명이 피해를 입은 끔찍하고 처참했던 미증유의 재앙이었다. 그 잔인했던 6·25가 끝나고 휴전이 됐다. 남북 사이에는 철책선이 쳐지고 비무장지대(이하 DMZ)가 생겼다. DMZ는 1953년 7월 27일 판문점에서 체결한 정전협정으로 생성됐다. 총길이는 248km인데 경기도 구간은 연천군 32km, 파주시 71km를 합해 103km이다. 끔찍한 전쟁의 결

과로 생긴 DMZ는 '분단의 벽', '냉전의 상징', '한반도의 화약고' 등으로 불렸다.

그런데 60년이란 세월이 흐르는 사이에 DMZ는 냉전의 현장이면서 아이러니하게 생태의 보고로 변모했다. 이곳에는 멸종위기 동식물 82종과 한반도 동식물종의 30%가 서식하고 있으며, 습지, 식생우수지역, 희귀식물군 서식지 등 생태우수지역이 다수 존재한다. 또 평화와 통일을 염원하는 국내 관광객들은 물론 분단현장을 보기 위해 60만 명의 외국인이 임진각을 찾고 있다고 한다. 도라산전망대와 제3땅굴도 외국인의 관심이 많다.

경기도는 그동안 DMZ의 생태, 평화적 가치를 국내외에 알리고 대한민국과 경기도의 이미지를 높일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해왔다. DMZ 브랜드 세계화, 역사문화자원 활용 관광지 개발, 남북교류, 통일기원 문화행사 등이다. 지난 20일엔 경기도의 DMZ SNS홍보단 'DMZ 프렌즈 3기' 발대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이들은 각종 DMZ일원 문화행사에 직접 참여해 다양한 미션을 수행하고, SNS를 통해 DMZ일원의 생태·안보·역사·문화적 가치를 널리 알린다. 역사·생태적으로 중요성을 인정받고 있는 DMZ는 세계적인 명소로 홍보할 가치가 있다.

12.8 X 13.7 cm



DMZ프렌즈 3기 단원들이 20일 파주 캠프그리브스에서 발대식을 갖고 기념사 촬영을 하고 있다.

‘자연·생명’의 공간 DMZ 숨은 매력 알려볼까

**DMZ 프렌즈 3기 발대식
나이·직업 다양하게 선정
SNS·블로그 활용 홍보**

비무장지대(DMZ)의 숨은 가치를 알릴 경기도 DMZ SNS홍보단 'DMZ 프렌즈 3기'(이하 프렌즈)가 지난 20일 파주 캠프그리브스에서 발대식을 열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22일 도와 경기관광공사에 따르면 프렌즈는 도내 DMZ 관련 문화행사에 직접 참여해 관광인프라를 체험한 뒤, SNS를 통해 DMZ의 생태·안보·역사·문화적 가치를 알리는 홍보단이다.

지난 2014년 대학생을 대상으로 시작한 프렌즈는 지난해부터

폭 넓은 세대공감을 위해 일반인까지 참여 대상을 확대해 운영하고 있다. 이번 3기 홍보단은 70세 컴퓨터 강사를 비롯해 영상 전문가, 파워블로거, 관광통역사, DMZ 일원 군복무자 등 다양한 연령과 직업을 가진 35명으로 구성됐다.

이날 프렌즈는 마군 반환기지가 최근 태양의 후예로 유명세를 탄 캠프그리브스에 입소해 안 전교육과 위촉장 수여식을 진행했다. 이후 개성 등 북한이 내려다 보이는 도라전망대와 경의선 남북 출입사무소(CIQ), 도라산역 등 안보·평화의 명소들을 둘러본 후 분야별 팀 편성 및 향후 홍보 방안을 구성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프렌즈 최고령자 박용서

(70)씨는 “전쟁을 겪은 세대들은 DMZ를 상처와 단절의 공간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다”며 “하지만 앞으로 세대 간 소통과 아름다운 자연 환경에 주목해 DMZ 일원의 다양한 가치를 살릴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포부를 밝혔다.

이후 프렌즈는 21일 연천에서 열린 평화누리길 걷기대회에 참가해 임진물새롬랜드~동이리 마을회관, 설운교 등을 거쳐 돌아오는 10.5km의 순환형 코스를 걸었다. 단원들은 임진강과 주상절리 등의 풍경과 수현재교 등 DMZ·평화누리길과 관련한 이야기 소재를 사진에 담으며 홍보를 준비했다.

도 관계자는 “DMZ가 더 이

상 분단과 아픔의 상징이 아닌 화해, 생명, 소통의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할 것”이라며 “다양한 분야의 인원으로 구성된 프렌즈 3기인 만큼 흥미롭게 공감할 수 있는 콘텐츠가 나오리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프렌즈는 앞으로 6개월간 각종 DMZ 관련 문화행사에 참여, 미션 수행을 통해 사진, 포스터, 스토리텔링, 블로그 등 각 분야별 홍보 콘텐츠 제작 및 SNS 홍보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DMZ 프렌즈 3기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경기관광공사 DMZ 관광사업팀(☎031-956-8302)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신기호 기자 skh@khihoilbo.co.kr

경기도민 1천 300명 '임진강 평화누리길 걷어 요'

경기도민 1천 300명 '임진강 평화누리길 걷어요'

(의정부=연합뉴스) 최재훈 기자 = 경기도는 21일 오전 열린 '평화누리길 걷기행사'에 도민 1천 300명이 참가했다고 22일 밝혔다.

'상절리, 비경 속 봄을 걷다'를 주제로 열린 행사에서 참가자들은 임진물새롬랜드를 출발해 수현재교를 지나 주상절리, 동이리 마을회관, 설운교를 거쳐 다시 임진물새롬랜드로 돌아오는 10.5km의 순환형 코스를 걸었다.

이날 행사에서는 황공천과 임진강이 합류하는 지점을 잇는 다리인 수현재교의 개통식도 열렸다.

참가자들은 개통기념 장식물들로 꾸며진 수현재교 위에서 임진강과 황공천을 배경 삼아 기념사진을 찍기도 했다.

도 관계자는 "임진강, 주상절리 등 보물 같은 경치가 더욱 빛날 수 있도록 평화누리길을 명품트래킹 코스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평화누리길 걷기행사는 김포·고양·파주·연천 등 DMZ 일원 4개 시·군을 잇는 최북단 트래킹 코스를 걷는 행사다.

경기도와 경기관광공사가 건강한 걷기문화 확산과 DMZ 관광 활성화를 위해 지난 2010년부터 실시했다.



경기도, 다문화·탈북자 가정과 DMZ 안보견학

경기도, 다문화·탈북자 가정과 DMZ 안보견학
(의정부=연합뉴스) 최재훈 기자 = 경기도는 21일 오전 8시 30분께 파주 비무장지대(DMZ) 일원에서 다문화·탈북자 가족 등 120명을 대상으로 '2016년 주민과 함께하는 DMZ 안보 견학'을 실시했다.

이번 견학은 한 시민의 제안으로 시작했다. 지난해 6월 의왕시에 사는 한 시민이 '결혼 이주여성 등 안보에 대해 잘 모르는 계층에게 분단국가의 현실을 알려줄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며 경기도 홈페이지를 통해 제안했고, 도가 타당성을 검토해 올해부터 추진하게 됐다.

이날 참가자들은 경의선 남한구간 최북단 역인 도라산역과 1978년 발견된 남침용 군사도로인 제3땅굴 등을 찾아 안보 현실에 대해 배웠다.

도 관계자는 "앞으로도 안보와 통일의 중요성에 대해 알리는 프로그램들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jhch793@yna.co.kr
(끝)

14.4 X 8.6 cm

인천일보

2016년 05월 23일 (월)
02(경기판)면 종합

‘DMZ 프렌즈 3기’ 35명 선발 “비무장지대 가치’ 집중 홍보” 경기관광공사 SNS 등 활용

경기관광공사는 지난 20일 비무장지대(DMZ)의 가치를 홍보할 DMZ SNS홍보단 ‘DMZ 프렌즈 3기’ 35명을 최종 선발하고 캠프그리브스에서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22일 밝혔다.

‘DMZ 프렌즈 3기’는 시니어 SNS전문강사, 영상 전문가, 파워블로거, 관광통역사, DMZ일원 군복무자 등 DMZ에 관심 있는 다양한 일반인과 학생들로 구성됐다.

이들은 앞으로 DMZ 문화 체육프로그램, DMZ 인프라(캠프그리브스 등) 등을 SNS를 통해 집중 홍보할 계획이다.

DMZ 프렌즈 3기는 이날 발대식을 시작으로 민통선 내 유일한 민간인 숙박시설인 캠프그리브스와 도라전망대, CIQ(통일부 남북출입사무소) 민북 관광 체험 후 연천 평화누리길 걷기대회 행사에 참여해 홍보 미션을 수행한다.

/문원태 기자 myt@incheonilbo.com
5.6 X 13.9 cm

연천 평화누리길 걷기 행사 1300명 참여



【연천=뉴스시스】 이종구 기자 = 21일 연천 평화누리길 제11코스 임진적벽길에서 열린 올해 두 번째 평화누리길 걷기행사에 가족단위, 트레킹 동호회 등 1300명이 참가해 성황을 이뤘다.

‘주상절리, 비경 속 봄을 걷다’를 주제로 올해 두 번째 열린 행사에서 참가자들은 임진물새롬랜드를 출발, 수현재교를 지나 주상절리, 동이리 마을회관, 설운교를 거쳐 돌아오는 10.5km의 순환형 코스를 걸었다.

또 평화누리길 페이스페인팅, DMZ 야외사진전시회, 평화누리길 포토카드 인증샷 찍기, 주상절리에서 보내는 편지 등 다채로운 체험 프로그램도 만끽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황공천과 임진강이 합류하는 지점을 건너는 높이 14m, 길이 46m, 폭 3m의 교량 ‘수현재교’의 개통식도 열렸다.

참가자들은 개통기념 장식물로 꾸며진 수현재교 위에서 임진강을 배경삼아 기념사진을 찍으며 추억을 장식했다.

이 밖에 DMZ환경 보존을 실천하고 교육을 통해 뜻깊은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자리도 마련됐다. 참가자들은 걸을 때 마다 참가비의 일부를 DMZ일원 환경보전 캠페인 기금으로 적립했고, 학생들의 경우 환경정화 활동을 실시, 봉사활동 3시간을 인정받았다.

행사장에는 연천지역의 특산품을 만나볼 수 있는 미니장터도 열려 눈길을 끌었다.

평화누리길 걷기행사는 김포·고양·파주·연천 DMZ 일원 4개 시군을 잇는 최북단 트레킹 코스 평화누리길을 걷는 것으로, 경기도와 경기관광공사가 DMZ의 관광 활성화를 위해 2010년부터 실시하고 있다.